광주신세계, 47층 규모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제시

광주시에 터미널 개발계획 제출
터미널 지하화…차고지 녹지공간
지상엔 판매·문화·숙박·주거시설
시, 협상대상지 선정 후 사전협상

광주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터미널 내부 조감도(왼쪽)와 야경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부지에 특급 호텔과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개발 계획안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측이 제출한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신세계백화점을 유·스퀘어 문화관까지 확장하고, 종합버스터미널은 문화·상업·업무시설과 특급호텔을 갖춘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개발,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 기존 터미널은 수직으로 복합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종합버스터미널은 현대화해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교육·의료시설과 주거복합시설(500여세대) 등이 들어서 쇼핑, 문화생활, 업무, 주거가 한 곳에서 가능한 콤팩트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버스차고지로 이용되던 터미널 지상부는 7500평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터미널 복합화 개발은 총 사업비 4조 4063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2037년 9월까지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로 백화점이 신축되고 공원공간 등이 조성된다. 2단계는 2028년 10월부터 2033년 8월까지로 터미널과 특급호텔이 포함된 숙박시설, 교육,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3단계는 주거복합시설이 신축되는 단계로 2033년부터 2037년 9월까지 추진된다.

광주신세계 측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금액은 983억원으로 산정했다. 광주시와 협상 등을 통해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주신세계 측 개발계획안을 이날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자문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 여부(60일 이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협상대상지가 선정되면 광주시는 광주신세계의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안 등을 놓고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그룹은 지난해 11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광주신세계는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 등 광천터미널 부지 매입 계약을 했다. 이어 광주신세계는 지난 7월 양수 대금 완납으로 유·스퀘어 부지와 터미널 사업권 등을 금호고속으로부터 모두 양수받았다.

이로써 유·스퀘어는 전체 지분 중 광주신세계가 67%를, 금호고속은 33%를 소유하게 됐다.

박용수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편의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전제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나다운 기자

전남도,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목포대서 쌀소비 필요성 알려

전남도는 21일 목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전남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나광국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박종탁 전남농협 본부장, 최세웅 목포대 학생취업처장, 목포대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선 학생들에게 쌀로 만든 도넛을 전달하고,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해 식습관의 중요성과 쌀 소비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에 참여하는 대학과 업무협약을 진행 정부 지원금 외 1000원을 추가 지원해 전남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밥을 대학생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목포대, 순천대, 초당대, 청암대, 전남과학대, 동신대, 전남대 여수·화순 7개 대학에서 추진 중이며 만족도가 높다. 전남도의 추가 지원으로 대학교의 재정 부담이 해소됨과 동시에 전남쌀 소비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외국인 주민 정착 수행기관 확대 운영

기존 2곳에 목포·순천지역 추가
고충 상담·한국어 교육 등 진행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울 수행기관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목포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순천 로드월드비전이 추가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1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3506명으로, 지난 3월보다 374명이 늘었다.

수행기관 확대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용 접근성과 사업 추진 실적, 교육장·상담실 등을 종합 심사해 2곳을 추가 선정했다. 한 곳당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수행기관을 통해 기존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함이 없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월 광양 외국인 노동자센터,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뒤 고충 상담 307건, 출입국 상담 172건, 통·번역 73건 등 모두 1000여 건을 지원했다.

오지현 기자